

NEWS LETTER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원님들의 동정을
소개하는 뉴스레터

Vol. **007**
2026. 3. 31

17대 회장 취임사



[시론]



길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진로를 다시 묻다

청주교육대학교
이종범 교수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2026년 춘계 한국진로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문화예술 기반 진로교육과 인간 주체성
 제38회 국제공간디자인초대작품전 & 진정함 극복함 콘서트
 (인공지능과 공간디자인, 꿈을 그리는 노래: 슈만과 말러의 예술과 삶)

일시 | 2026년 4월 18일(토) 10:00 ~ 16:30
 장소 | (오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과학관 605호
 (오후) 북서울꿈의숲 상상특목미술관

주최 | KISD 한국진로교육학회,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KJEA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38권 04호



진로교육연구
제 38 권 제 4 호 / 2025. 12.

1	19년 NBT 진로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3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4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5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6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7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8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9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0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1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2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3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4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5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6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7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8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19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0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1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2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3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4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5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6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27	19년 NBT 진로 상담 플랫폼 관련 실 경험담을 분석	김영희 / 진로교육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발행처 / 한국진로교육학회
 발행인 / 양종국
 편집인 / 홍성표, 유금현, 송재영
 연락처 / 010-5419-6965
 이메일 / careeredu1@naver.com
 홈페이지 / https://careeredu.net/
 주소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106호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7대 회장을 맡은 한경국립대학교 양종국 교수입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는 1993년 창립 이래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 연구와 실천을 선도하며 30년이 넘는 학술적 전통과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간 학회는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자, 실천가 여러분의 기여가 있어 오늘의 학회가 존재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확장해 왔습니다. 매년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열며 국내 진로교육 담론의 폭과 깊이를 넓혀 왔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연구는 학회 공동체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진로교육연구』를 꾸준히 발간함으로써 진로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외 학술 교류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 왔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기반 위에서, 저는 학회가 연구의 혁신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진로교육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접근은 학습자 맞춤형 진로설계와 상담 체계를 고도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회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연구와 실천 전반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학술적 성과의 질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기반의 소통과 국제적,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진로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회 운영 전반에 혁신적인 연구 지원, 회원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젊은 연구자와 신진 실천가를 위한 연구 활동 기반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진로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습자,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 신중년 등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을 경험하지 않도록, 포용적 진로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교육, 사회복지,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업무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국가차원의 진로교육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진로교육이 특정 영역이나 일부에게만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삶과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학회가 학문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빛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17대 한국진로교육학회 회장 양종국



[시론] 길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진로를 다시 묻다

— 청주교육대학교 이종범 교수

여러분에게 진로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쯤 그것을 '길'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명한 경로. 혹은 사다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미지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AI 전환(AI,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그 이미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형적 경로는 예측 불가능한 분기점에서 무력해지고, 위계적 사다리는 기술 변화 앞에서 가로대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은유가 필요합니다.

진로의 첫 번째 이미지는 '경로(path)'였습니다. 뚜렷한 출발점, 명확한 목적지,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몇 안 되는 길들. 직업이 안정적이고 경력의 궤적이 예측가능했던 시대에 이 이미지는 잘 들어맞았습니다. 한편, AI 시대의 진로는 '네트워크(network)'입니다.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노드가 다방향으로 얽힌 그물망. 오늘의 경험이 예상치 못한 내일의 기회와 연결되고, 전혀 달라 보이는 역량들이 새로운 접점에서 가치를 발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을 택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결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지도(map)'였습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를 가리켜 주는 정적인 안내자. 그러나 지도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낡기 시작합니다. 직업 세계가 급격히 재편되는 지금, 불과 몇 년 전의 진로 지도는 이미 절반이 백지가 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navigation)'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며 도로 상황이 바뀌면 즉시 경로를 재계산하는 동적 안내 시스템. 오늘의 최적 경로가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순간 가장 현명한 방향을 선택하는 민첩함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진로 역량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사다리(ladder)'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한 계단씩 오르는 위계적 성장의 표상. 직급과 연공서열이 분명한 조직 문화에서 강력한 동기 부여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AI가 수많은 중간 단계 직무를 대체하는 시대에, 사다리의 가로대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로는 '포트폴리오(portfolio)'로 재정의됩니다. 위계가 아닌 역량의 다양성과 깊이. 각각의 경험이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독특한 가치를 구성하는 총체. 좋은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독창적인 조합을 만들어 냈는가'를 보여 줍니다.



[시론] 길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 진로를 다시 묻다

— 청주교육대학교 이종범 교수

네 번째 이미지는 '무지개(rainbow)'였습니다. 학생, 직업인, 부모, 은퇴자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역할의 스펙트럼. 한 번에 하나의 색깔을 살아가는, 순차적인 삶의 서사. AX 시대는 이 순서를 해체합니다. 크리에이티브이면서 동시에 개발자이고,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1인 기업가인 삶. '멀티 아이덴티티(multi-identity)'는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복수의 자아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역량입니다. 각각의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를 만들어 낼 때, 그 사람의 진로는 누구도 복사할 수 없는 고유함을 얻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퍼즐(puzzle)'이었습니다. 흩어진 경험 조각들을 정교하게 맞추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이루는 것. 아름다운 이미지이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퍼즐은 마지막 조각이 끼워지면 끝납니다. AX 시대의 진로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플랫폼(platform)'입니다. 안드로이드처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앱을 받아들이며 확장되는 살아있는 시스템. 오늘의 역량 위에 내일의 기술이 얹히고,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것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좋은 플랫폼의 목표는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전환이 단순한 은유의 교체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어쩌면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가정에서, 상담실에서 어떤 진로 이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이들에게 "꿈의 직업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네트워크 시대에 낡은 경로 지도를 쥐여 주는 셈일 수 있습니다. AX 시대의 진로 교육은 목적지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연결하는 법, 실험하는 법, 재구성하는 법, 그리고 끊임없이 달라지는 자신을 낫설어하지 않는 법을 함께 익혀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62차 춘계학술대회 초대장

2026년 춘계 한국진로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문화예술 기반 진로교육과 인간 주체성

제38회 국제공간디자인초대작품전 & 진정한 융복합 콘서트

(인공지능과 공간디자인, 꿈을 그리는 노래: 슈만과 말러의 예술과 삶)

일시 | 2026년 4월 18일(토) 10:00 ~ 16:30

장소 | (오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과학관 605호
(오후) 북서울꿈의숲 상상특독미술관

주최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Real Stimme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궤적을 그려나가는 '진로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예술적 경험이 어떻게 개인의 전 생애적 발달과 진로에 영감을 주는지를 탐구하고자,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및 독일예술가곡연구회 Real Stimme와 손잡고 '진정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의 포문을 여는 한국진로교육학회의 학술 세션은 삶과 예술의 연결고리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림책이라는 매개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로 에세이를 써 내려가는 '자기 주도적 진로교육 사례'를 통해,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고유의 주체성을 조명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음악이 이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화두로, 예술 교육이 개인의 장기적인 진로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찰합니다.

이러한 진로교육적 성찰은 이어지는 전시 및 공연 세션과 깊이 공명합니다. AI와 공간의 융합을 다루는 '제38회 국제공간디자인초대작품전'은 미래 세대가 활약할 새로운 환경과 직업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슈만과 말러의 생애를 조명하는 오후의 '진정한 융복합 콘서트'는 예술가들의 치열했던 삶과 직업 의식이 어떻게 불후의 명곡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진로 탐색의 장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진로교육의 지혜, 첨단 기술이 빚어내는 공간의 미래, 그리고 거장들의 삶을 담은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장
양종국 드림

제62차 춘계학술대회 초대장

공식 행사 및 주제발표 프로그램

시간	내용	장소
10:00 ~ 10:10	개회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과학관 605호
10:10 ~ 10:40	주제 발표 1 — 남미숙 대표 (㈜일과사람성장연구소) 그림책을 읽고 나의 길을 쓰다: 그림책 진로에세이 쓰기를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교육 사례	
10:40 ~ 11:10	주제 발표 2 — 김혜진 수석교사 음악은 이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음악교육 사례	
11:10 ~ 11:40	주제 발표 3 — 추미정 연출 (사단법인 제로캠프) 연극 무대에서 시작된 변화: 청소년의 진로와 자기이해	
11:40 ~ 12:00	휴식	
12:00 ~ 12:40	종합토론	
12:40 ~ 13:00	주제발표 세션 종료	
13:00 ~ 14:00	장소 이동 (※ 사전신청자에 한해 버스 이동편 제공)	
14:00 ~ 15:00	점심 식사 (※ 사전신청자에 한해 식사 제공)	
15:00 ~ 16:30	공연 및 전시 관람 - 공연: '꿈을 그리는 노래' (슈만과 말리의 예술과 삶) - 전시: 인공지능(AI)과 공간디자인 (※ 전시는 4.18~4.22 운영)	

학술대회 등록 안내

· 참가비

사전등록 2만원 / 현장등록 3만원(최종 50명 한정)

· 사전 등록기간

1차 2026년 4월 6일(월) : 식사(샌드위치+커피),

교통편 및 전시/공연 포함

2차 2026년 4월 10일(금)

* 식사, 교통편 및 전시/공연 관련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1차 신청기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공간디자인학회·예술가곡연구회와 함께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주제발표, 공연 및 전시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전 등록 방법

※ 사전 참여 링크를 통해 참여 신청

<https://forms.gle/h57fjRk7upjvqstY7>

※ 입금계좌: 신한 140-011-698728 / 한국진로교육학회

· 현장등록방법

※ 학술대회 당일 접수대에서 접수

· 문의

사무국 간사 | 송재영 010-5419-6965 (문자만 수신 가능)

학회 메일 | careeredu1@naver.com

홈페이지 | www.careeredu.net

행사 장소 안내

한양대학교 생활과학관 (오전)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버스: 121, 302, 2012, 2014, 2222 등



북서울꿈의숲 상상특목미술관 (오후)

주소: 서울 강북구 월계로 173

지하철: 우이신설 출발공원역 / 4호선 미아사거리역

버스: 141, 162, 1114, 1167 등



진로교육연구 38권 04호

진로교육연구

제 38 권 제 4 호 / 2025. 12.

청년 NEET 진로발달 유형이 전이 및 영향요인 분석: 종단적 측정동일성 기반 잠재전이모형의 적용
김민정 · 이현숙 1

청년 니트의 취업 의사와 과거 일 경험: 진로 장벽으로서의 일자리 조건 경험을 중심으로
김유원 · 이혜나 · 문찬수 27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와 그것의 이중매개효과
유혜주 · 유금란 51

국내 진로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 2017년~2024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백정기 · 이계경 7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학교 진로교육 정책 문서 분석
김성환 · 조규하 105

진로취약계층 고등학생의 '괜찮은 일' 인식에 대한 개념도 연구
김진선 · 최영미 · 황해영 125

교육지원대상 청소년의 지속도전, 진로계획, 능동학습 역량 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용 및 사회적지지 차이
정신경 14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과
장래희망일 경험부족의 조절된 매개효과
홍재영 · 고인지 · 김성민 173

자기결정성 이론 기반 진학 동기 촉진 집단상담 참여에 따른
기본심리요구 개선 및 진학준비행동 향상 효과
김신영 · 이윤경 191

전공자율선택 입학형의 진로적용 과정에 대한 탐색
김영화 · 김하나 · 박미선 213

메타 전공생이 인식하는 스터디 내식 직업이미지
김동아 · 이혜은 257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1-25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1

청년 NEET 진로발달 유형의 전이 및 영향요인 분석: 종단적 측정동일성 기반 잠재전이모형의 적용*

김민정 이현숙*
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청년 NEET 집단의 진로발달 유형이 전이 및 양상,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청년 NEET 문제 해결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2021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NEET을 정의하고, 종단적 측정동일성 검증 절차에 따라 잠재전이모형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일상 가정에 기반하여 진로발달 수준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진로발달 평가항·진로태만 취약항·고집단 영향력이 도출되었다. 이는 서로 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어 각 시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진로발달 유형으로 해석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전이행동 동일성 모형을 통해 상이한 진로발달 수준의 전이 양상은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히 진로발달 취약항과 고집단 영향력 집단 간 안정적인 전이 양상은 매우 두드러져 나타났다. 셋째, 예측효과 동일성 모형을 보드록 진로발달 수준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와 구직동기 요인이 모든 시점에서 진로발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초하여 종단적 측정동일성 검증의 필요성 및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청년 NEET 문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년패널2021, 청년 NEET, 진로발달, 잠재전이모형, 종단적 측정동일성

* 이 논문은 2025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교신저자, 이현숙, 건국대학교, hyunsky@konkuk.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27-50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27

청년 니트의 취업 의사와 과거 일 경험: 진로 장벽으로서의 일자리 조건 경험을 중심으로*

김유원* 이혜나 문찬수
연세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국제예술대학교
교육연구소

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 시장에서 축적된 부정적 일 경험이 청년 니트에 대해 취업 의사는 청년 니트 혹은 취업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에 속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니트 상태(니트, 취업 의사가 있는 니트, 취업 의사가 없는 니트)를 종속변수로 하고, 과거의 일거리 좌절 경험과 일자리 조건 경험을 독립변수로 두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 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C2021)의 9차년도부터 14차년도까지 총 606명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 수는 총 541명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일거리 좌절 경험은 니트에 대해 취업 의사에 따른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둘째, 과거의 일거리 조건 경험은 니트에 대해 니트 집단, 특히 취업 의사가 없는 니트 집단에 속할 가능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좌절의 정도와 경험이 있는 경우 니트에 대해 두 니트 집단 모두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기 임금 수준과 부가급이 수준이 낮을수록 니트에 대해 취업 의사가 없는 니트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청년 니트 집단이 주목받게 된 백악인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청년 니트와 일 세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조건 경험이 청년 니트의 진로 결정보다 직접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노동 시장에 대한 부정적 경험의 주체가 니트 상태, 특히 취업 의사가 없는 니트 상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청년 니트 현상이 개인 문제에서 나아가 사회 문제에서 고인된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결정을 매우는 처방적·치료적 접근을 넘어, 일자리 조건의 구조적 개선과 취업 의사 회복을 지원하는 비관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청년 니트, 취업 의사, 진로 장벽, 일자리 좌절 경험, 일자리 조건 경험

* 2024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함.
* 교신저자, 김유원,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ulkan1010@yonsei.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51-71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51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와 그것의 이중매개효과

유혜주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본 연구는 인원지역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기격려와 그것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원지역 3개 특성화고등학교 1~3학년 학생 259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SPSS 28.0과 PROCESS Macro 4.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진로지지, 자기격려, 그것,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와 그것의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자기격려와 그것과 같은 긍정적 심리자원을 매개로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다만, 인원지역 학생에 한정된 표본이 청년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주요어 : 특성화고등학생, 부모진로지지, 진로준비행동, 자기격려, 그것

* 이 연구는 유혜주(2025)의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용 수정, 보완 및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hyun@cafnk.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73-101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73

국내 진로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 분석:
2017년~2024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백 정 기 이 재 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진로 관련 질적연구 가운데
개인의 진로 선택·직업·진학 경향을 질적으로 탐색한 논문을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하여
최근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질적연구의 발달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발표시기, 발표지 학문 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질적연구 수행
타당성 검증 과정 등 6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총 13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시기에 따른 연구 편수는 연도별로 10~20편 범위에서 분
포하였다. 둘째, 발표지의 학문 분야는 사회과학이 74.9%(101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은 연구가 수행된 대상의 속성에 따라 교육 및 프로그램(28.7%), 발달단
계(27.9%), 소수자(20.6%), 직업인(15.4%), 상담(6.6%) 영역 순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연구방법
은 사례연구와 합의적 질적연구(QQ)가 각각 20.6%(28편)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근거이
론, 현상학, 내러티브 탐구, 문화기술학, 생애사 연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섯째, 연구주제
는 각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룬 진로 경험의 핵심 내용에 따라 교육 및 발달 과정(19.0%), 사
회·복지적 지원(17.8%), 진로선택 및 결정(13.2%), 진로준비과정(12.0%), 진로진행 및 전략
(9.8%) 순으로 분류되었다. 여섯째, 질적연구 수행 요인으로서 검증 과정은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모든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인용되고 발표지 검토가 함께 제
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내 진로 분야의 질적연구가 다양한 대상, 주제, 방법을 중시
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향후 질적연구 수행과 보고 과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진로, 질적연구, 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연구진흥과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이재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kb0914@koreatech.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103-123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10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학교 진로교육 정책 문서 분석*

김 성 환* 조 규 락*
철국교육지원청 영남대학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가 발표한 진로교육 계획의 중심어로 대한민국 진
로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데이터 분석법으로
활용하여 핵심 단어의 빈도, 동시 출현 단어, 주요 주제 분석 및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탐색
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교육 정책 담론 내에서 '지원', '경쟁', '상당', '역량', '연수' 등의 키워
드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초반에는 '상당' 및 '경
쟁' 계층에서 2010년 중후반 '지원' 학습 및 교원 역량, 그리고 2020년 이후 '다자별' 연대
조 및 온라인 시스탈로 정책 초점이 편이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는 진로교육이
단순히 지원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정책 프레임워크와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과 연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본 연구 결과는 미래 진로교육 정책 설
계 및 교육과정 계획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함과 더불어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진로교육, 진로 교육과정, 진로교육 정책 문서, 텍스트 마이닝

* 이 연구는 김성환(2025)의 석사학위논문은 요약 및 수정한 것임.
† 제 1저자, 김성환, 경상북도 철국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kbk1ae79@naver.com
‡ 교신저자, 조규락,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rok186@ynu.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125-148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125

진로취약계층 고등학생의 '괜찮은 일' 인식에 대한
개념도 연구*

김 진 선* 최 영 미* 황 해 영**
인하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취약계층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의 개념 구조를 탐색하고,
구상적이며 긍정 및 사회적 충동성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개념도 연구방법을 적용
하였다. 진로취약계층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초질질본 면담을 실시하여 질문문을 수집하
고, 주제과정을 통해 대표 진술문 41개를 도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이 직접 유사성 분류와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괜찮은 일' 인식은 2개 차원, 5개 군집으로 구조화되었다. 1차원은 외부원인 의존
-원시적일 진로이해의 축, 2차원은 안전·사회적 기여 지향·자율·자기실현 지향의 축으로
해석되었다. 도출된 5개의 군집은 첫째, '생애와 안정적 진로지향' 축 5도함, 둘째, '자기표현
과 활동 기법 실현 진로탐색' 축 12도함, 셋째, '진로결정단 계와 자기결정의 맥락' 축 11도
함, 넷째, '사회적 기여와 실현적 진로추구' 축 6도함, 다섯째, '진로결정의 심리적 기반' 축 7
도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진로취약계층 고등학생의 '괜찮은 일'에 대한 참여자 언어기
반의 인식 지원할 제시함으로써, 이들 삶의 맥락을 반영한 진로지원 모델 설계의 기초가 되
게 제공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상담 전략 수립에 실
용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진로취약계층, 고등학생, 괜찮은 일, 개념도 연구, 삶의 심리학 이론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A5A5B5A140241108).
† 주저자, 김진선,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인문학술연구교수, kjsun@inha.ac.kr
‡ 공동연구자, 최영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융합프로그램 박사과정, hccw02@daum.com
*** 교신저자, 황해영,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 haeyg@inha.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149-172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149

교육지원대상 청소년의
지속도전·진로개척·노동학습 역량 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용 및 사회적지지 차이*

정 선 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속도전 역량과 진로개척 역량과 노동학습 역량을 위한 교육 유형을
도출하고 학교적용 및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삼성광학재단 매슬러 교육지원 사
람에 참여한 중학생 1,816명을 대상으로 K-means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세 개의 잠재집단상의 집단: 성장형 37.4%, 중위 집단: 균형형 47.4%, 하위
집단: 지원형 15.2%로 도출되었으며, 군집 간 학교적용(F=207.33, p<.001)과 사회적지지
(F=287.79,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노동학습 역량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지역구분, 시험유형, 경제상황, 가족구성 등 배경변인에 따른 군집 분포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속도전 역량에 개인의 내적 특성과 환경
적 지원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됨을 시사하며, 군집별 맞춤형 교육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청소년, 지속도전 역량, 진로개척 역량, 노동학습 역량, 학교적용, 사회적지지, 군집분석

* 본 연구는 삼성광학재단 교육복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논문 공모전 발표 논문임.
† 교신저자, 정선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jyh376@gmail.com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173-190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17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용력 간의 관계에서 학업부기력과 장래희망직업 결정여부의 조절된 매개효과

홍재영 고민지 김정민*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부기력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적용력에 미치는 영향과 장래희망직업 결정여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제 6차년도(2018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중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결측값이 없는 2,22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7.0과 PROCESS Macro(MoDl 7)를 활용하여, 학업부기력과 장래희망직업 결정여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용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부기력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여 학업부기력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부기력 간의 관계에서 장래희망직업 결정여부가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장래희망이 결정된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부기력 간에 보다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적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담원장 및 가정에서 청소년의 진로적용력 발달의 증진을 위한 개별 맞춤형 부모교육과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긍정적 양육태도, 진로적용력, 학업부기력, 장래희망직업 결정여부

* 교신저자, 김정민,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아동학부 교수, jkmin123@mj.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191-212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191

자기결정성 이론 기반 진학 동기 촉진 집단상담 참여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개선 및 진학준비행동 향상 효과

김선영*1 어윤경*2

*1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2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기반하고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 전략을 통합한 진학동기 촉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를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인선 소재 여자중학교 3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유사실험설계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율성과 유능감 만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관계성 영역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진학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진로탐색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적 진학동기 촉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높여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진로탐색 중심의 진학준비행동 촉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전환기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 개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의미적으로 탐색적으로 개시하였다.

*주제어 : 전환기 청소년, 자기결정성, 기본심리욕구, 진학준비행동, 진로탐색, 고교학점제, 동기강화상담

* 석사학위논문 '자기결정성 이론 기반 진학 동기 촉진 집단상담 참여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개선 및 진학준비행동 향상 효과'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김선영,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 sun082121501@naver.com
* 교신저자, 어윤경,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ayk8892@kongju.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213-236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213

전공자율선택 입학생의 진로적용 과정에 대한 탐색

김영화 김하나* 박미선
서울교육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성대학교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은 초기 성인으로서 다양한 적응 과업을 직면한다. 특히 전공자율선택(비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전공 선택이라는 과업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독특한 진로적용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공자율선택으로 입학한 대학생들이 여러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진로적용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전공 선택을 의무화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전공자율선택으로 입학한 2학년 이상의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8개의 주요 범주와 26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전공자율선택 입학생들의 진로적용 경험은 전공 진입 전의 적응과 이후의 적응으로 구분된 순환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타와 경쟁 속에 전공자율선택에 입학한 뒤 제1전공 내외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는 적응과정 중 나타난 결과,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였다. 학업 진입 이후에도 전공 적응,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중전공 선택 등에 있어 제한된 적응자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적응반응을 보였고, 진로탐색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공존하는 적응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전공자율선택 입학생의 진로적용이 지속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임을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의 진로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전공자율선택, 후천성, 진로적용, 진로개발, 진로구성주의

* 교신저자, 김하나, 차 의과학대학교, hnan1480@cha.ac.kr

진로교육연구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5, Vol. 38, No. 4, 237-258
https://doi.org/10.32341/JCER.2025.12.38.4.237

예비 전공생이 인식하는 스트리트 댄스 직업이미지

김동아 이해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본 연구는 중학생 예비 스트리트 댄서가 인식하는 직업 이미지를 탐색하고, 이것이 진로 선택 및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학생 7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내용 범주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을 준수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리트 댄서의 직업 이미지지는 6가지 요인에서 양극적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중적 평판과 사회적 인상은 긍정적이었으나, 보상 측면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부상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였다. 전문성은 다차원적 역량으로 인식되었으며, 취무 환경은 높은 자율성 대비 시간적 여유 부족이 특징적이었다. 둘째, 이러한 이미지는 진로 선택 시 자아개념 설정을 통한 '각자의 행동'과 현실적 제약, 고려한 '전략적 준비' 및 '대안 수립'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중학생 예비 댄서들이 직업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예술 분야 청소년 진로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 이미지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스트리트 댄스, 직업 이미지, 중학생, 진로 선택, 질적 연구

* 교신저자, 이해준, 한양대학교 교수, hujoon1123@hanyang.ac.kr